

韓國・日本の 古代 佛教幡에 관한 研究

— 中國 唐幡의 韓國・日本에의 傳播와 受容을 중심으로 —

林 玲 愛

(梨花女子大學校)

目 次

| | |
|----------------|---------------------------|
| 머리말 | II. 日本 古代의 幡 |
| I. 韓國 古代의 幡 | 1. 法隆寺의 佛教幡 |
| 1. ‘旗’로서의 幡 | 2. 正倉院의 佛教幡 |
| 2. 文獻史料를 통해본 幡 | III. 韓・日 古代 佛教幡의 關係와 그 意義 |
| | 맺음말 |

머 리 말

깃대위에 幡이 매달려 있는 모습은 세계 어느 지역 어느시기의 막론하고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특히 佛教幡은 佛教儀式의 한 도구로서, 軍人이 전쟁터에서 외적을 물리치는 것처럼 道場의 魔鬼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인도에서 처음 달았던 것이다. 그 후 점차 그 기능이 확대되면서 佛塔이나 佛殿에 이와같은 幡을 장식함으로써 더욱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혹은 사찰입구에 幢竿을 세우고 幡을 매어달아 聖域임을 표시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韓國, 日本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불교유입이전에 이미 ‘旗’로서의 幡은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佛教幡’은 불교가 유입되면서 불교와 함께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우리나라를 거쳐 日本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이 때 전해진 불교번은 기존의 ‘旗’로서의 幡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또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本 연구에서는 中國에서 전해진 韓國과 日本의 佛教幡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나 현재 일본에는 많은 수의 번이 남아있어 고찰이 용이하지만 韓國의 경우는 朝鮮時代 이전의 幡이 원형으로나 잔결로나 한점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단지 日本의 叡福寺에 통일신라시대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幡의 잔편이 남아있는 것이 유일한 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幡을 거는데 쓰였던 幢竿 및 幢竿 支柱의 數가 유난히 많고 옛부터 織造, 繡를 놓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였을 뿐만아니라 여러 문헌자료의 기록을 통하여 많은 수의 번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第Ⅰ章 韓國 古代의 幟에서는 비록 불교번은 아니지만 고분벽화, 탑의 기단부 등에 남아있는 고대번과 문헌사료에 나타난 ‘旗’로서의 幟 및 佛教幟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第Ⅱ章 日本 古代의 幟에서는 불교유입이전의 幟과 현재 많은 유물이 남아있는 法隆寺, 正倉院의 佛教幟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끝으로 第Ⅲ章 韓·日 古代佛教幟의 關係와 그 意義의 章에서는 중국 唐幟과 우리나라에 전해져 성립된 일본의 이른시기의 번, 그리고 일본 叡福寺의 幟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완형의 실물이 남아 있지 않은 통일신라시대의 번의 형태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古代 中國 佛教幟의 樣式變遷考」(『美術史學研究』189, 1991. 3., pp. 69~109)의 후속 논문으로 번의 개념과 종류, 기원, 그리고 중앙아시아·중국의 幟에 관해서는 위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I. 韓國 古代¹⁾의 幟

우리나라에는 朝鮮時代 이전에 해당하는 幟이 완형로나 잔결로나 한점도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고분벽화, 탑의 기단부 등에는 비록 불교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고대번의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旗’로서의 幟의 형태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의 형태와 문헌사료에 나타난 ‘旗’로서의 幟 및 佛教幟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旗’로서의 幟

幟은 佛教幟과 일반적인 ‘旗’로서의 幟으로 나뉘어 진다. 이중 ‘旗’로서의 번은 크게 두가지 형태 즉 旗와 旒²⁾으로 나뉘는데 이때의 旗는 협의로서의 旗이다. 이를 통칭하여 ‘旌旗’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旗’라고 부른다.²⁾ 旒는 일반적으로 그 끝에 깃털모양의 것이 달려있는 ‘旗’를 가리키고, 협의의 旗는 깃털모양의 것이 달려지 않은 모든 ‘旗’를 말한다.³⁾

우리나라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⁴⁾ 불교가 유입되기 이전에 軍旗로서 사용되었거나 혹은 儀禮用으로 사용되었던 ‘旗’로서의 幟이 있었음은 확실하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旗’를 협의의 旗와 旒으로 대별하

* 이 논문을 지도해주신 文明大교수님과 鄭良謨·俞俊英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료의 견학을 위하여 많은 편의를 제공해주신 런던대학의 Roderick Whitfield, 朴英淑교수님, British Museum의 Jessica Rawson, V&A Museum, Guimet Museum의 여러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

1) 종래 古代라는 시기설정은 중국, 한국, 일본 각국이 매우 커다란 시기적 편차를 보이지만, 적어도 미술사의 입장에서 동아시아라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약간의 異見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동아시아의 三國이 비교적 평행적으로 발전한다는 입장에서 9~10세기까지, 즉 중국에서는 唐까지, 한국에서는 統一新羅까지, 일본에서는 平安時代 전기까지를 고대로 파악하고자 한다.

2) 林 巴奈夫(1966), 「中國先秦時代の旗」, 『史林』49-2, pp.80~81

3) 『說文解字』段玉裁注 ‘旌旗者旗之通稱 旒有羽者 旗未有羽者 各舉其一 以該九旗’

4) 拙稿(1991) 「古代 中國 佛教幟의 樣式變遷考」, 『美術史學研究』189, pp.80~82

여 간략히 서술토록 하겠다.

우선 旗의 대표적인 예로는 4세기 중엽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高句麗 古墳壁畫 安岳第3號墳의 廻廊 行列圖(圖 1)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 이 행렬도에서 주인공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요소로는 각종 의장기와 주인공의 차림새, 행렬의 규모와 대열편성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많은 요소 가운데서 주인공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깃발이 있어 주목되는데 즉 주인공의 수레 바로 앞에 있는 長方形의 깃발에 흑색의 바탕위에 붉은 글씨로 ‘聖上幡’⁶⁾이라고 씌여 있는 것이 그것이다.(圖 2) 이와같은 표식기로서 聖上幡의 모습은 본고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불교변은 아니지만 이 무덤의 주인공이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물적자료로서 뿐만아니라 당시 이같은 儀禮에 ‘幡’이라고 명명된 깃발을 사용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이 이외에도 협의의 ‘旗’의 형태는 같은 安岳三號墳의 行列圖(圖 3)중 여러곳에 보이며, 藥水里벽화 고분의 前室 東·西壁 上部의 行列圖(圖 4), 그리고 德興里벽화고분 前室西側天井 玉女圖(圖 5), 天王子神塚 主室天井의 天王圖(圖 6), 輯安의 五塿(懿)墳四號墓⁷⁾ 左壁天井에 그려져 있는 日神·乘鳳凰圖(圖 7) 등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중 圖 5는 月象이 있는 서벽천정의 한 장면으로, 幡을 쥐고 하늘을 날고 있는 옥녀의 좌측에는 ‘玉女持幡’이라고 쓰여진 문구가 있어 주목된다. 圖7의 五塿墳四號墓 日神·乘鳳凰圖의 경우는 안에 날개를 펼치고 있는 三足鳥가 있는 日輪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龍위에 타고 통소를 불고 있는 伎樂人이, 우측에는 봉황을 타고 피리를 불고 있는 伎樂人이 묘사되어 있다. 이 중 좌측에 있는 伎樂人(圖 8)의 오른손에는 길게 뻗친 紅色의 幡이 들려있다.

고구려의 벽화에 나타난 旗의 예는 이 이외에도 雙楹塚 羨道東壁의 車馬人物圖에 그려져 있는 것(圖 11)이 있는데 쌍영총 車馬人物圖의 경우는 앞서 본 안악 3호분과 마찬가지로 儀禮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王用임을 느끼게 해줄만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牛車앞에 雙甲飾甲冑를 입고 長槍을 쥐고 있는 槍騎兵이 있다. 이 창기병이 쥐고 있는 장창의 끝에는 마치 중앙아시아의 제비꼬리형번과 같이 끝이 두갈래로 갈라진 깃발이 매달려 있다.

旌에 있어서는 역시 安岳三號墳의 같은 행렬도의 수레뒤에 말을 타고 있는 인물이 들고 있는 旌節旗⁸⁾(圖 9)가 주목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같은 분의 서측실 묘주도(圖 10)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旌의 형태는 古新羅에서도 발견된다. 즉 539년으로 추정되는 順興 邑內里壁畫古墳 玄門 上部壁의 아직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들고 있는 魚形旗(圖 12)가 그것이다. 이 인물이 잡고 있는

5) 朝鮮畫報社出版部編集(1977), 『高句麗古墳壁畫』, 東京, 朝鮮畫報社, 圖 23 참조

6) 현재 이 幡위에 쓰여져 있는 글자에 관하여 발굴할 당시 참관한 사람들 중에 확실히 ‘聖’字로 보았다는 사람과 처음부터 무슨글인지 알 수 없었다는 두가지 설이 있지만(田囑農(1959), 「安岳 河무덤(三號墳)에 대하여」 -그 발견1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유산』, p.26) 무슨글자인지 확인할 수 없더라도 聖字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김용준(1958),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과학원출판사, p.130)

7) 『輯安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pp.145~147) 과 吉林省博物館, 「吉林輯安五塿墳四號和五號墓清理略記」(『考古』, 1964年 第二期), 讀賣テレビ放送編(1988), 『好太王碑と輯安の壁畫古墳』(東京, 木耳社) 참고.

8) 이러한 형태의 정철은 1954년 봄에 중국 산둥성 界湖鎮에서 발굴된 沂南 漢 畫像石墓의 中室東面石刻(오른쪽 부분)에서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華東文物工作隊山東組, 「山東沂南漢畫像石墓」, 『文物參考資料』1954年 第8期 圖 27 참조)

三枝槍形 깃대위의 것은 북발형 끝에 두가닥으로 갈라진 술이 달려 있는 형태로 앞서본 圖 9, 10과 같은 종류의 旒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물론 이처럼 끝이 두갈래로 갈라진 형태를 앞서본 圖11의 雙楹塚羨道東壁의 車馬人物圖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圖11은 사각형을 기본형으로 하는 旗이고 이 魚形旗는 끝에 술이 달린 旒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끝으로 통일신라시대의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一層塔身の 東面과 北面에 이같은 旗와 旒의 형태가 보이는데 우선 北面(圖 13)에는 四天王과 童子가 조각되어 있다. 이 사천왕은 탑을 들고 있기 때문에 多聞天王이 분명하며 그 옆의 동자는 사각형에 끝이 여러갈래로 갈라진 깃발을 단 깃대를 잡고 있다. 東面에는 사천왕옆에 동자가 있는데 이 동자는 앞서 본 順興 邑內里壁畫古墳의 魚形旗라 불리우는 것과 같은 형태의 것을 들고 있다. 이처럼 사각형의 旗나 술이 달린 형태가 석탑에 조각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불교적인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다.⁹⁾ 비록 이 예가 본고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佛教幡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지만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旗와 旒의 형태가 불교에 유입되어져 石塔에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旗와 旒의 형태가 불교의 예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조선불화의 十王圖나 甘露王圖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 古代의 ‘旗’로서의 幡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크게 두 부류 즉 협의의 旗와 旒으로 나뉘어져 후대에까지 이어진다. 협의의 旗는 사각형을 기본형으로 하되 다소의 변형이 가해진 형태를 일컫는데 이처럼 장방형 혹은 직사각형의 직물을 사용하여 만든 단순한 旗의 형태는 중국의 先秦시대부터 보편적으로 애용되던 것이었다.(圖 15, 16) 旒는 주로 북발형의 직물의 끝에 깃털이나 술 등이 매어달린 형태를 기본형으로 하며 이러한 旒의 형태 역시 旗와 같이 중국의 先秦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圖 17, 18) 이와같은 ‘旗’로서의 幡은 신분의 高下에 따라 그 형태가 달랐을 것이며 또한 旗內에 그려진 그림 또한 달랐을 것으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 기회를 빌고자 한다.

이와같은 예들은 비록 불교번과는 거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대에 佛教의 莊嚴具 혹은 供養具로서의 幡 이외에도 많은 용도로 변이 사용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좋은 예가 될 뿐만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불교번의 형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와함께 한국 고대에 ‘佛教幡’이 성행하였고 발달하였음은 다음 절 ‘문헌사료를 통해서 본 번’의 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文獻史料를 통해본 번

1) 三國時代

高句麗時代는 벽화에 幡이 남아있어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日本書記』에도 고구려의 五色幡에 관한 기록이 있다. 欽明王 23年 8月條에 ‘8월에 天皇이 대장군 大伴連 狹手彥을 보내어 군

9) 秦弘燮(1986) 「於宿述千墓와 新發見 己未銘壁畫古墳」(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1986), 『順興邑內里壁畫古墳』) 서울, p.43

사 수만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정벌했다. 중략 狹手彥은 드디어 乘勝하여 宮에 들어가 七織帳, 鐵屋 등을 얻어 七織帳은 天皇에게 奉獻하고, 甲 2領, 금장식의 刀 2口, 銅鏤鐘 3口, 五色의 幡 2竿, 美女 媛 등은 蘇我 稻目宿 大臣에게 보냈다...’(강조점 筆者)¹⁰⁾라고 하고 있어 고구려에도 五色의 幡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기록만을 가지고는 그 번이 佛具로서의 번이였는가 아닌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欽明王 23年(562)은 고구려가 이미 불교를 받아들인지 200여년이 지난 후일 뿐만아니라 五色의 幡이라는 것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功德을 설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佛教幡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百濟의 경우는 ‘日本 古代의 幡’의 項에서도 논의하겠지만 『日本書記』에 ‘百濟 聖明王이 釋迦佛 金銅像, 經論과 함께 幡을 전해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¹¹⁾ 비록 그 형태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번이 일본에 전해줄 만큼 충분히 발달된 상태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앞서 高句麗, 百濟의 번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의 史書에만 나타난 기록이지만 古新羅의 번에 관한 기록은 『日本書記』¹²⁾에 뿐만아니라 『三國遺事』 卷第4 義解篇에 보인다. ‘慈藏은 本國에 아직 佛經과 佛像이 구비되지 못했으므로 大藏經 一部와 여러가지 幢幡, 花蓋 등 福리가 될만한 것을 청해서 모두 싣고 돌아왔다. 그가 本國에 돌아오자 온 나라가 그를 환영하고 왕은 그를 芬皇寺에 있게 하니...’¹³⁾라고 적고 있다. 또한 同書 原宗興法 厭滅身條에 ‘절과 절이 별처럼 벌여있고, 탑과 탑이 기러기처럼 줄을 지었다. 法幢을 세우고 梵種도 달아 龍象의 스님들은 天下의 福田이 되고...’¹⁴⁾라고 하고 있어 당시 무수히 많은 幢竿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幢竿에 당연히 부수되는 幡도 많았을 것은 자명하다.

2) 統一新羅時代

『三國遺事』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條에 景德王(742 764)이 唐나라 代宗皇帝(762 778)가 불교를 숭상한다는 말을 듣고 沈檀木을 새기고 아름다운 玉으로 꾸며 높이 일장 남짓한 假山을 만들었으며 또 그곳에 金과 玉으로 만든 流蘇幡蓋로 莊嚴하였다¹⁵⁾라는 이야기가 있다.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762년에서 764년 사이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당시에는 번을 流蘇¹⁶⁾로 장식하여 天蓋아래에 매

10) 『日本書記』 欽明天皇 二十三年八月 ‘八月 天皇遣大將軍大伴 連狹手彥 領兵數萬 伐于高麗 狹手彥乃用百濟計 打破高麗 其王 踰牆而逃 狹手彥乘勝以入宮 盡得珍寶貨賂 七織帳 鐵屋還來 以七織帳 奉獻於天皇 以甲二領 金飾刀二口 銅鏤鐘三口 五色幡 二竿 美女媛 并其從女吾田子 送於蘇我稻目宿 彌大臣...’

11) 『日本書記』 卷第十九 欽明天皇 13年條 ‘冬十月 百濟聖明王 遣西部姬氏達率怒喇斯致契等 獻釋迦佛金銅像一勸 幡蓋若干經論若干’

12) 『日本書記』 推古天皇 31年條 ‘秋七月 新羅遣大使奈末智洗爾 任那遣達率那末智 並來朝 仍貢佛像一具 及金塔并舍利 且大灌頂幡一具 小幡十二條 卽佛像居於葛野秦寺 以餘舍利 金塔 灌頂幡 等皆納于四天王寺’

13) 『三國遺事』 卷第四, 義解 第五, 慈藏定律 ‘...藏以本朝經 像未充 乞齋藏經一部 泊諸幡幢花蓋 堪爲福利者皆載之既至 泊國欣迎 命住芬皇寺’

14) 『三國遺事』 卷第三 興法第三, 原宗興法 厭觸滅身 ‘...寺寺星張 塔塔雁行 豎法 幢懸梵鐘 龍象釋徒 爲實中之福田...’

15) 『三國遺事』 卷第3 塔像 第四,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條, ‘...因號 萬佛山 更鑲金玉爲流蘇幡蓋菴羅 菊花果莊嚴...’

16) 流蘇란 끈으로 매듭을 맺고 그 끝에 술을 드리우는 것으로 비교적 大作을 일컫는다.

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佛國寺古今歷代記』에는 886年 憲康王이 죽자 그의 妃가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는데 그녀는 죽은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圓海라는 刺繡人을 시켜 釋迦牟尼佛像幡을 만들게 하였다 한다. 圓海는 그림과 자수솜씨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알려진 비구니로, 同書에는 그녀가 만든 釋迦牟尼佛像幡을 찬하는 崔致遠의 讚文도 함께 실려있다.

‘…中和 6年 5月 10日에 繡를 놓아 釋迦牟尼佛像幡을 만들었다. 전체의 배열이 다되어 받들어서 완성되었음을 알리니 이는 三歸의 意志를 장려하는 것이다. 五色으로 무늬를 이루고 부채모양으로 마름질한 나머지 부분은 染色하고 바늘의 妙로 꼬매이어서 노을같이 펴고 상서로운 모양이며 구름이 늘어서 있는 모양은 신령스럽고 신선과 같다. 허공에 높이 걸려있는 모습이 실로 功德을 드러내어 우리러 生天의 樂을 돕고 閻水의 자비를 펼치는도다.’¹⁷⁾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글에서 ‘五色으로 무늬를 이루고’라고 하고 있어 이 幡이 五色幡이었음을 알 수 있고, ‘부채꼴로 마름질한 나머지부분은 염색하고 꼬매이어서’라고 한 구절에서는 이 幡의 幡頭가 중국의 隋代, 우리나라 古新羅末 幡의 幡頭가 단지 두줄의 띠로 이루어져 있어 내부가 비어있는 것과는 달리 삼각형모양의 한장의 직물을 사용하여서 만들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이외에는 그 구체적인 형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어 애석하지만 왕비김씨가 죽은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中和 六年(886)에 繡를 놓아 만들었다는 이 釋迦牟尼佛像幡이 대단히 화려하였을 것이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3) 高麗時代

고려시대의 기록으로는 『高麗圖經』에 여러번 보인다. 특히 第17卷 興國寺條에는

‘興國寺는 광화문 동남쪽 길끝에 있다. 그 앞에 시냇물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놓아 가로질러 넘어간다. 대문은 동쪽을 면하고 있으며 ‘興國之寺’라는 榜이 있다. 뒤에 法堂과 經殿이 있는데 역시 매우 웅장하다. 들 가운데 銅으로 부어 만든 幡竿이 세워져 있는데 밑지름이 2尺이고 높이가 10餘丈이다. 그 형태는 위쪽이 뾰족하며 마디에 따라 이어져 있고 황금으로 칠을 했다. 위는 봉황새의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비단번을 물고 있다. 다른

17) 『佛國寺古今歷代記』‘二十一間所安釋迦繡像一幀及左右壁憲康大王畫相及景文朝善畫尼圓海之所筆此寺定公主女也以畫繡稱世第一’

『佛國寺古今歷代記』王妃金氏爲考繡釋迦如來像幡讚 ‘…唐僖宗中和六年丙午五月十日 敬繡釋迦牟尼佛像幡一幀 奉爲蘇判莊嚴 告畢 斯及三歸勵志 五彩成章 染其裁扇之餘綴以因針之妙 霞舒瑞質 雲列靈仙 高掛虛空 實彰功德 仰助生天之樂耶 申閻水之悲 讚曰 巍然聖相 梁爾神功 福潤冥路 光浮梵宮 虹鱗海 日鳳舞天風 沓沓玄夜 飄飄碧空 絲羅結恨 組繡呈工兜率天上 精誠感通’

절에도 있으나 다만 安和寺의 것에는¹⁸⁾ ‘大宋皇帝聖壽萬年’이라 쓰여져 있다.¹⁹⁾

이 글로 미루어 밑지름 60센티, 길이 약 30미터의 거대한 幡竿에까지 도금을 하였고 정상에는 봉황새의 머리로 장식되어 있으며 그 곳에 錦으로 만든 幡까지 매달려 있으니 화려함이 극을 달했으리라 생각된다. 뿐만아니라 그 중 安和寺의 것에는 ‘大宋皇帝聖壽萬年’이라고 쓰여져 있다하니 아마도 이 幡의 경우는 수명을 연장시키는 功德을 說한다는 五色續命神幡의 일종이었을 것이라 추측된다.²⁰⁾ 그러나 이 문장에서도 幡竿의 형태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나 幡의 형태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宋皇帝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幡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靑, 黃, 赤, 白, 黑의 五色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幡이었을 것이라는 추정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同書 第10卷 儀物2의 黃幡條에

‘黃幡의 제도는 문양이 있는 羅로 만들고, 위에 祥雲을 繡놓고 있다. 그 형상은 위를 뾰족하게 하고 두 귀에서는 流蘇를 내렸는데 흔들면 소리가 난다. 幡의 머리에서 끝까지의 길이가 9尺이고, 넓이가 1尺 5寸이며, 깃대의 길이는 1丈 5尺이다. 大禮때에는 華蓋와 함께 나란히 세우는데 그것을 잡고선 군인의 服飾도 한가지이다.’²¹⁾라고 하고 있어 고려시대 幡의 형태를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위가 뾰족한 삼각형의 幡頭를 지닌 모습이나, 크기, 비례등에서는 宋代에까지 그 형태가 이어진 중국의 唐幡의 형태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되나 幡手 대신 流蘇를 늘어뜨렸으며, 흔들면 소리가 난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번의 경우 직물로 만든 幡手 대신 流蘇를 늘어뜨린 예는 한점도 찾아볼 수 없었으나, 幡手나 幡足的 끝에 방울을 단 경우는 敦煌莫高窟 西夏時代의 벽화(圖 19)에서의 예가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실물유품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宋代의 幡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제3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이외에도 蔡壽의 『遊松都錄』,²²⁾ 『東文選』 卷64 奉先弘慶寺記²³⁾ 그리고 『西河集』²⁴⁾ 등에서도 幡에 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18) ‘唯安和者 書云’의 해석문제에 있어서 國譯『高麗圖經』에서는 ‘다만 安和寺의 것에는’이라고 하였지만 (民族文化推進委員會(1978) 『高麗圖經』古典國譯叢書 119, pp.111 112) 辛鐘遠은 ‘安和라는 者가 쓴’이라고 풀이하고 있다.(辛鐘遠(1987), 前掲書 p.16)

19) 『高麗圖經』第十七卷 祠宇 興國寺 ‘興國寺在廣化門之東南 道旁 前直一谿 爲梁橫跨 大門東面 榜曰興國寺 後有堂殿 亦甚雄壯 廷中立銅鑄幡竿 下徑二尺 高十餘丈 其形上銳 逐節相承 以黃金塗之 上爲鳳首銜錦幡 餘寺或有之 唯安和者 書云 大宋皇帝聖壽萬年 觀其傾頌之意 出於誠心 宜其被遇’

20) 小野玄 妙(1925), 『佛教美術概論』, 丙午出版社, p.284

21) 『高麗圖經』第十卷 儀物二 黃幡 ‘黃幡之制 以丈羅爲之 上繡祥雲 其形上銳 兩角設流蘇 動搖有聲 幡之首尾 通長九尺 闊一尺五寸 竿長一丈五尺 大禮 則以與華蓋並列 而所執之軍服飾 一等也’

22) 『遊松都錄』 ‘…戊子 出承濟門 行二十餘里 至敬天寺 寺經火 但存一室…中略…僧出所藏寶珠長幡以示之 珠徑數寸 光艶照人 幡亦織錦爲之 皆堂時奇后所施者也…’

23) 『東文選』 卷64 奉先弘慶寺記 ‘…所置塑畫諸功德像 及鐘磬 幡蓋具如見在 其數寔繁 乃賜門額爲奉先弘慶寺…’

24) 『西河集』 卷5 小林寺重修記 ‘…自大定十四年六月 訖十七年 七月 又新構成會主滿金觀音菩薩像一勸 或營珍龕繪蓋花果幢幡或鑄鐘磬 至於茵帳机安器皿種種莊嚴之具…’

II. 日本 古代의 幡

불교가 수용되기전에 이미 幡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日本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니다. 즉 日本 最古의 勅撰書인 『日本書記』 神代上條에 의하면 ‘一書에 가로되 伊奘冉尊이 火神을 낳았을 때 불에 구어져버린 모습이어서 神이 가버렸다. 고로 紀伊國 熊野의 有馬村에서 장례지냈다. 土俗에 이 신의 혼을 제사지낼 때 꽃이 필때는 꽃으로 제사하였고 또 鼓吹幡旗를 사용하여 歌舞하며 제사지냈다.’라고 한다.²⁵⁾ 또 同書 卷第7 景行天皇 九月條에 ‘一國의 魁帥가 天皇의 使者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磯津山의 變목을 뽑아 꼭대기의 가지에는 八握劍을, 가운데 가지에는 八咫鏡을, 아랫가지에는 八尺瓊을 걸었으며 또한 素幡을 배의 뒤에 세워 參向하며 가로되 “원컨데 병사를 내리지 마소서 나의 부하들은 반드시 어기지 않습니다.”’²⁶⁾라고 하여 토속적인 의식에 幡을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佛敎幡에 관한 최초의 기록 역시 『日本書記』에 보이는데, 즉 일본의 번은 欽明天皇 13年(552)에 百濟로부터 金銅釋迦像, 佛經과 함께 전해졌다고 한다.²⁷⁾ 이 때 百濟로부터 가져와졌던 번은 현재 남아있는 양지만 그 형태는 법륜사의 玉蟲廚子 宮殿部の 後面壁에 그려져 있는 靈鷲山淨土圖(圖 20)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²⁸⁾ 羅漢과 如來가 앉아있는 寶塔의 相輪部에는 형태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꽤 간략화된 幡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형태는 중국 北周時代의 幡과 흡사한 모습이다. 또한 同書 推古天皇 31年(623)條에는 ‘秋七月에 新羅는 大使 奈末智洗爾를, 任那는 達率奈末智를 보내어 來朝하였고 거둬 佛像 1具와 金塔, 舍利 또 大灌頂幡 1具, 小幡 12條를 보내왔다. 이때 佛像은 葛野秦寺에 모셨고, 나머지 舍利, 金塔, 灌頂幡등은 모두 四天王寺에 獻納되었다.’라고 하여²⁹⁾ 大灌頂幡 1具와 小幡 12條가 新羅, 任那로부터 가져와져 四天王寺에 모셔졌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기록들로 미루어 일본의 번은 佛像, 經論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전해주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해주었다는 당초의 幡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기때문에 일본의 번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오래된 번이라고 알려진 法隆寺幡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日本 古代의 幡은 幡頭의 형태와 幡身 각 단의 크기에 따라 크게 두가지 종류로 대별된다. 그 첫째가 法隆寺幡이고, 두번째가 正倉院幡이다.³⁰⁾ 日本 古代의 幡은 위의 법륜사와 정창원의 번을 제외

25) 『日本書記』 卷第一 神代上 ‘一書曰 伊奘冉尊 生火神時 被灼而神退去矣 故葬於紀伊國熊野之有馬村焉 土俗祭此神之魂者 花時亦以花祭 又用鼓吹幡旗 歌舞而祭矣’

26) 『日本書記』 卷第七 景行天皇 十二年九月 ‘一國之魁帥也 聆天皇之使者之 則拔磯津山之賢木 以上枝掛八握劍 中枝掛八咫鏡 下枝掛八尺瓊 亦素幡樹于船軸參向而啓之 曰 願無下兵 我之屬類 必不有違者…’

27) 注11 참조

28) 澤田むつ代(1988), 『日本の美術』, 第263號 染織(原始・古代篇), 東京, 至文堂, p.45

29) 注12 참조

30) 松本包夫(1979), 『日本の染織』 第1卷, 東京, 中央公論社, p.233

하고는 거의 다른 유례가 없기 때문에 本稿에서도 이들 범룡사 번과 정창원의 번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들 중에서도 대체로 범룡사번이 정창원번에 비해 그 才質이나 형태면에서 약 30년가량 앞서므로 범룡사번을 먼저 고찰토록 하겠다.

1. 法隆寺의 幡

法隆寺의 幡³¹⁾은 대부분 완형으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잔결이 많아 그 형태를 살펴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완형번과 잔결을 포함하여 약 50점이라는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고, 그 중 약 20여점은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³²⁾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기에는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같은 범룡사의 번은 材質과 幡身의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蜀江錦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幡身의 가장자리에 한줄의 테두리를 두른것, 둘째 廣東織을 이용하였고 幡身이 2줄의 테두리를 지닌것, 셋째 그 외의 나머지 것으로 나뉜다.³³⁾

첫번째의 蜀江錦幡(圖 21 및 삽도 1-1참조)은 대체로 두번째 형식의 廣東幡에 비하여 幡身 각 단의 길이가 길고, 段의 수는 4단, 幡足の 수는 중국의 것보다 많은 5개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幡頭와 幡手が 분리되어 있던 것에 반해 촉강금번은 幡頭와 幡手が 한줄의 띠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幡身の 테두리에 사용된 格子蓮華文錦과 幡身の 중심에 사용된 雙鳳獅子唐草連珠圓文錦은 서역의 아스타나나 敦煌莫高窟에서 발견된 隋~初唐期の 織物과 유사하여³⁴⁾ 이들 幡이 古式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의 廣東幡類의 경우는 잔결중에 「和銅 7年」(714)의 銘文이 있는 것이 있어 주목되는데 이들은 앞서본 촉강금번에 비하여 幡身の 각 단의 길이도 짧고, 각 단의 경계선마다 금속의 원형장식이 부착되어 있다.(圖 22 및 삽도 1-2참조) 또한 촉강금번과 달리 幡頭와 幡手の 띠가 분리되어 있다. 세번째 부류의 것은 대체로 平絹의 織物을 사용한 것³⁵⁾이 대부분으로 幡身 각 단의 경계선마다 幡手を 달고 있는 것이 많고 각 단의 길이도 짧아 거의 정방형에 가깝다.(圖 23 및 삽도 1-3참조)

범룡사의 번을 이와같이 3종류로 대별하여 보았지만 사실상 이들 번은 한장의 직물을 삼각형모양으로 잘라 만든 중국의 幡頭와는 달리 3줄의 띠를 이용하여 내부가 빈 幡頭를 만들었다는 점, 幡身 각 단

31) 法隆寺幡에 관한 자세한 연구로는 동경국립박물관의 法隆寺獻納寶物 調査院인 澤田むつ代の 여러편의 논문이 있다. 「法隆寺幡に使われている‘綾’-正倉院幡との比較において-」(『MUSEUM』 389, 1983, pp.22~23), 「法隆寺獻納寶物 平絹幡殘欠二旒-重要資料緊急修理(昭和五十九年度)を終えて-」(『MUSEUM』 408, 1985, pp.23~30), 「法隆寺獻納寶物 染織幡五旒-重要資料緊急修理(昭和五十八年度)を終えて-」, 『MUSEUM』 396, 1984, pp.4~16), 「法隆寺獻納寶物 染織幡四旒-重要資料緊急修理(昭和六十年年度)を終えて 上-」(『MUSEUM』 429, 1986, pp.30~38), 「法隆寺獻納寶物 染織幡三旒と幡足一條-重要資料緊急修理(昭和六十一年年度)を終えて-」(『MUSEUM』 442, 1988, pp.25~33)

32) 木内武南, 澤田むつ代(1980), 「法隆寺の佛幡について」, 『MUSEUM』 NO. 348, p.4

33) 澤田むつ代(1988), pp.48~50

34)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1985), 『中國美術全集』工藝美術編 6, 印染織繡(上), 北京, 文物出版社, 圖145 참조

35) 澤田むつ代(1985), 「法隆寺獻納寶物 平絹幡殘欠二旒-重要資料緊急修理(昭和五十九年度)を終えて-」 『MUSEUM』 408, pp.23~30

의 구획선 가장자리에 구슬모양의 장식을 붙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幡身 각 단의 경계부분에 짧은 띠모양의 幡手를 양쪽에 각2개씩 부착시키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아마도 중국 隋代幡 형식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의 번과 비교하여 이들 범류사번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幡手の 끝에 달려있는 V字形的 金銅透彫裝飾(圖 24, 25)으로 현재 범류사에는 幡手の 끝을 장식했던 것이라 생각되는 이와같은 金具가 몇점 남아있다. 안에는 忍冬唐草文을 透彫하고 있고 그 끝에는 매듭의 술장식과 같은 色絲와 방울이 달려있었는데 이같은 금동투조장식은 범류사의 번, 그 중에서도 이른시기의 것에만 나타나 특히 주목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韓國 古代的 幡'에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幡頭의 표현에 있어서도 3줄의 띠를 이용하여 만든 것은 隋代의 幡과 유사하지만, 중국의 번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幡舌이 부각되어 있다는 점과 幡舌이 弔輪과 연결되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특징들과 몇몇의 紀年이 있는 번들을 기준으로 미루어 보면 일본번의 가장 이른시기에 해당하는 범류사번의 연대는 대체로 7세기후반 8세기초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중 특히 蜀江錦幡은 7세기말경에, 廣東幡은 그보다 늦은 8세기초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正倉院의 幡

일반적으로 正倉院의 染織品은 크게 두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즉 天平勝寶 4年(752)의 大佛開眼會에 사용되었던 用品과 天平勝寶 9年(757)의 聖武天皇 一周忌齊會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그것이다.³⁶⁾

後者に 비해 5년정도 이른시기의 것인 大佛開眼會의 염직품은 매우 다양하여 經錦, 緯錦, 平地綾 등 新舊의 여러가지 織法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양에 있어서도 범류사의 것에 비해 규모가 커진 連珠文, 唐草系文樣, 動物唐草文 등 특별히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에 반해 聖武天皇의 염직품은 前者의 다양성이 오히려 정돈된 느낌을 주며 오래동안 지속되어 왔던 중국의 전통적인 문양은 거의 자취를 잃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서방풍의 連珠文이나 樹下動物文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강경함으로부터는 벗어나 다소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경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같은 염직품의 특성은 幡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점은 大佛開眼會用品이었던 夾纈羅幡과 聖武天皇一周忌齊會용이었던 錦幡을 비교하여 보아도 알 수 있다. 夾纈羅幡(圖 26 및 插圖 1-4 참조)은 두 겹의 平絹위에 夾纈의 羅를 앞뒤로 붙여 모두 4겹으로 幡身을 만들었다.³⁷⁾ 이와같은 기법은 羅의 밑에 平絹의 색이 비쳐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幡足은 범류사번과 유사하나 幡頭의 표현은 앞서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한장의 織物을 이용한 삼각형모양을 하고 있다. 이같이 삼각형으로

36) 松本包夫(1979), 前掲書, pp.223~226

37) Hickman은 돈황의 번과 정창원의 번은 그 형태가 거의 유사하지만 차이점이려면 돈황의 것은 얇고 가벼운 직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나무심을 번신의 상단부분과 번신의 사이사이에 덧대어야 했던 점이라고 하고 있다.(Money L. Hickman(1973), "Notes on Buddhist Banner", *Boston Museum Bulletin*, Vol. 71, No. 363참조)

이루어진 幡頭の 모습과 幡身の 각 단의 길이가 짧아져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것은 중국의 唐幡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³⁸⁾ 여전히 幡舌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보다 5년 늦게 제작된 錦幡(圖 27 및 삽도 1-5참조)³⁹⁾ 은 夾纈羅幡과 거의 유사하나 弔輪과 幡舌이 하나로 붙어있던 것이 따로 독립되어 주목된다. 즉 弔輪과 幡舌이 한줄로 되어 있어 그 굵기가 같았던 것이 따로 떨어지면서 弔輪은 얇은 한줄의 끈으로 바뀌어 幡頭の 山形 꼭대기에 매달리고 幡舌은 여전히 幡手와 같은 굵기로 幡頭の 테두리 안쪽에 부착되어졌다. 이 이외에 特記되어질만한 것은 幡身の 형태이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든 번의 경우는 번신의 각 단이 사각형의 직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에 반해 이 번은 각 단을 대각선 방향으로 二分하고 있다. 二分한 上段과 下段에는 서로 다른 織物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경계선부분에도 幡身の 가장자리에 두른 띠와 같은 종류의 얇은 띠로 덮어 장식하고 있어 대단히 화려하다. 이러한 화려함은 幡身에서 뿐만아니라 幡足에서도 나타나는데 천을 긴마름모꼴로 잘라 색을 바꾸어가며 이어붙이고 있다. 그 끝도 이전과 같이 단순히 시침질한 것이 아니고 幡足の 끝을 장식하기 위해 따로 장식물을 만들어 붙이고 있다.

이상으로 正倉院의 幡에 관하여 大佛開眼會와 聖武天皇一周忌齋會式에 사용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앞서도 논의하였듯이 幡에 사용된 才質이나 文樣은 대불개안회의 것에 비해 성무천황일주기재회식에 사용되었던 것이 다소 정돈된 느낌을 주기는 하나 형태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장식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현재 정창원에 남아있는 많은 종류의 幡足 장식품을 보아도 알 수 있다.(圖 28)

끝으로 범룡사의 번과 정창원의 번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범룡사와 정창원의 번에 사용된 織物은 대부분 錦, 綾이 주를 이루는데,⁴⁰⁾ 그 중 범룡사번은 錦보다 綾이 많고, 정창원의 경우는 綾도 많지만 유난히 많은 종류의 화려한 錦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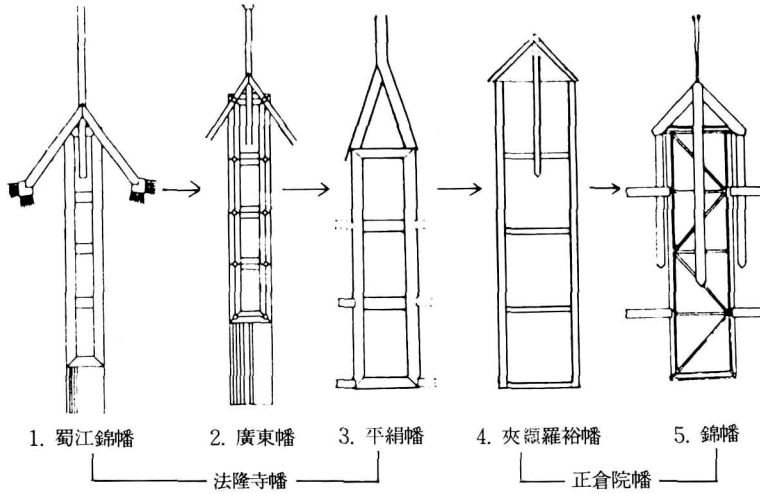
材質 뿐만아니라 형태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즉 범룡사의 번은 幡頭가 두줄 혹은 세줄의 띠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형태도 안정된 이등변삼각형이 아닌 끝이 뾰족한 긴 이등변삼각형을 하고 있다. 또한 幡身の 각 단의 길이도 길며, 幡手の 끝에 V字形의 장식이 달려있는 몇개의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번들이 장식없이 단순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정창원의 번은 幡頭の 모양도 중국의 唐幡과 마찬가지로 내부가 채워진 삼각형모양이고, 幡身の 각 단도 정방형에 가깝다. 뿐만아니라 幡身과 幡足등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장식하고 있어 화려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插圖1 참조)

7세기 후반~8세기초의 法隆寺의 幡과 8세기 중엽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正倉院의 幡은 단지 약 30년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범룡사번은 우리나라를 통하여 전해진 隋代幡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으며, 정창원번의 경우는 범룡사번의 전통을 부분적으로 이으면서 당시 유입된 唐幡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隋代幡 보다는 오히려 唐幡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8) 澤田むつ代(1988), p.52

39) 奈良國立博物館編(1985), 『正倉院展』, 奈良, p.56, 圖35 참조

40) 澤田むつ代(1983), 「法隆寺幡に使われている'綾'-正倉院幡との比較において-」 『MUSEUM』 389, pp.22~23



(挿圖 1) 日本 古代幡의 變遷

Ⅲ. 韓·日 古代 佛教幡의 關係와 그 意義

앞서 한국과 일본의 고대번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전술하였듯이 우리나라에는 현재 고대번의 실물이 한점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 叡福寺에 통일신라시대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번의 잔편이 남아있어 주목되는데 본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일본의 고대번을 토대로 하여 특히 같은 시기 중국번과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성립된 일본의 이른 시기의 번을 중심으로 한국 古代幡의 형태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한국 고대에 ‘旗’로서의 幡 뿐만아니라 ‘佛教幡’이 성행하였고 발달하였음은 앞서 여러 참고자료 및 문헌사료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한국 고대의 불교번은 현재 완전하게 남아있는 유물이 없어 그 정확한 형태를 알기는 어렵지만 백제가 일본에 전해주었다는 번은 그 시기(552年)로 미루어 보거나 현재 일본에서 보이는 가장 오래된 번의 모습인 法隆寺의 玉蟲廚子에 표현되어 있는 幡의 형태(圖 20)로 미루어 보거나 北魏時代의 幡(圖 29)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한다. 따라서 당시 백제의 幡은 幡頭와 幡手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제비꼬리형번의 형태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新羅가 日本에 전해주었다는 幡은 시기적(623年)으로나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가장 이른 시기 실물번인 법륜사번의 초기형태로 미루어 보나 隋代幡의 형태에 가까운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日本書記』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해주었다는 신라의 幡은 隋代幡(圖 30)의 다소

변형된 형태였을 것이며, 따라서 7세기초 고신라변의 형태는 일본의 범룡사변(7세기후반~8세기 초)과 흡사한 모양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후 入唐求法僧 慈藏이 貞觀 17年(643)에 唐의 高宗으로부터 하사받은 佛經, 佛像, 幡 등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기록에서 이때의 번은 隋代幡(圖 30)이 아닌 唐幡(圖 31)을 가지고 돌아왔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된다. 따라서 고신라말기에서 통일신라초기까지는 隋代幡과 함께 唐幡이 공존하였을 것이며 그 후 통일신라의 중기, 말기가 되면 隋代幡의 형태는 사라지고 唐幡만이 신라의 전역에 퍼져 유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統一新羅시대에는 『佛國寺古今歷代記』에도 쓰여있듯이 세계 제일의 刺繡人이 있어 幡을 만들었으며 심지어 그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佛事에 있어 繡佛像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보여진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幢竿의 數로 미루어도 얼마나 성행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즉 현재 남한지역에 남아있는 당간지주의 수는 잘 알려져있는 것만 약 67여기에 달하며 그 중 고신라시대의 것이 약 10%, 통일신라시대는 약 70%, 그리고 고려시대의 것이 약 19%에 달한다 한다.⁴¹⁾ 수차에 걸친 외침으로 초창기의 사원이 원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와같은 당간 및 당간지주의 숫자는 실로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⁴²⁾ 특히 통일신라시대의 경우는 그 유례가 더욱 많아 따라서 번이 발달했을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豊基出土의 金銅龍頭(圖 32)를 들 수 있는데 이 龍頭는 幡 사용의 실례를 알 수 있어 주목된다. 이 金銅龍頭에는 滑車(도르래)가 장치되어 있고, 그 크기로 미루어 약 10미터 가량의 긴 幡도 충분히 매달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³⁾ 이와같은 龍頭의 모습은 국립박물관소장의 陰刻寶幢銅板과 호암박물관소장의 金銅寶幢(圖 3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大阪府南河内郡太子町에 위치해 있는 叡福寺⁴⁴⁾의 寺寶중에 刺繡裂斷片이 있다.⁴⁵⁾ 獅咬連珠圓文刺繡(圖 34)라고도 불리우는 이 번의 단편들은 약 10여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현재 그 조각들을 유리사이에 끼워 보관하고 있다. 그 뒷면에는 꽃과 팔메트 문양 1片, 그리고 飛天繡佛 2片 등 모두 3片的 조각이 있으며 이 역시 유리 사이에 끼워져 있다. 이들은 江戸時代에 범룡사로부터 기부되었던 것으로 일본소장의 古代 染織品에 있어서는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유품이다. 叡福寺에서는 前面의 것을 「奉獻의 御幡」, 後面은 「勝蔓經繪御幡」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들이 佛幡의 殘缺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⁴⁶⁾ 이들 佛幡의 잔결들중 특히 前面의 獅咬連珠圓文刺繡가 주목되는데 그 이유는 外箱에 적혀있

41) 具善會(1980), 前掲論文, p.18

42) 韓國의 幢竿 및 幢竿支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다. 辛鐘遠(1987), 「幢竿造營의 文化史的 背景」, 『江原史學』 第3集; 朴洪國(198), 「慶州地方 幢竿支柱의 研究」, 『慶州史學』 第4集; 具善會(1980), 前掲論文; 葛城末治(1935), 前掲論文

43) 姜友邦(1987), 「統一新羅法幢의 復元的 考察」,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서울, 一志社, p.347

44) 叡福寺는 聖德太子와 그의 母 妃를 合葬했던 橫穴式石室墳을 内部主體로 하는 磯長廟의 앞에 위치해 있다.

45) 西谷 正(1983), 「朝鮮古代의 連珠文」, 『展望アジアの考古學』, 新潮社版, p.481; 田村 隆照(1978), 「上の太子 叡福寺の寺寶」, 『佛教藝術』 119 増大號, p.87; 大阪市立美術館(1977), 『河内飛鳥古寺名寶』, 大阪, 圖46 참조

46) 岡崎讓治(1978), 「河内飛鳥の佛教工藝品」, 『佛教藝術』 119 増大號, p.115.

는 文句 때문이다. 筆者도 실물을 직접 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外箱에 「新羅國獻上之幡」이라고 쓰여 있다고 하며, 內箱은 黑漆塗蓋의 표면에 국화문양을 金蔞繪⁴⁷⁾한 것이라 한다. 만약 外箱의 이 문구들을 그대로 믿는다면이 번은 新羅로 부터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幡에 관한 유례가 전혀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없이 중요한 遺品이 아닐 수 없다.

이 刺繡幡斷片의 상반부에는 정면을 향하고 있는 鬼面을 主文樣으로 하고 있고 그 주위를 重圈帶속의 連珠文이 둘러싸고 있다. 활짝 웃고 있는 鬼面은 도깨비를 표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험상스럽지 않고 오히려 친근감마저 준다. 이와같은 怪獸面의 모습은 漢式에 속하는 古式의 意匠으로 특히 벌어진 입이 전혀 각진곳 없이 표현된 모습 등은 古新羅末期 天恩寺址 出土의 鬼面瓦(圖 35)⁴⁸⁾와 흡사하다. 귀면의 주위에는 두툼한 重圈帶가 있고 그 안에 16개의 珠文이 배치되어 있다. 重圈帶의 上·下와 左·右의 4곳에는 方形의 重角文이 있고, 각 重角文 사이에는 4개씩의 커다란 珠文이 있다. 連珠文 사이에 方形이 없고 그 수도 많은 형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더러 보이나(圖 36)⁴⁹⁾이들은 다소 시대가 올라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이 珠文의 숫자도 적고 그 크기도 크면서 또한 珠文사이에 方形을 배치한 형태는 고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유사한 연주문의 형태는 범룡사소장의 四騎獅子狩文錦(圖 37)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四騎獅子狩文錦⁵⁰⁾은 현재 일본에 소장되어 있지만 連珠의 수가 적고, 主文의 주위에 당초문이 없으며, 수렴도의 배치가 일반적으로 상하좌우대칭인데 반해 좌우대칭만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主文중의 花樹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문양중의 馬腹에 「山」, 「吉」의 문자가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日本產이 아닌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만약 外箱에 적혀있는 「統一新羅獻上之幡」이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이 幡 또한 위의 四騎獅子狩文錦과 마찬가지로 中國產이라고 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⁵¹⁾ 역으로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염직품 중에 현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것이 상당수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정된다.⁵²⁾

하반부의 잔결들은 형태를 전혀 알아볼 수 없어 현재 고찰이 불가능하나 앞으로 이에 관한 상세한 보고도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그 繡法에 있어서는 全面에 모두 鎖繡⁵³⁾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기법은 기본 針法중의 하나로서 중국에서는 漢代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47) 원하는 곳에 金을 심어 형태를 나타내는 것

48) 天恩寺址는 『三國遺事』에 의하여 文武王(661~681)以前の 寺址라는 것이 확실하다.

49) 西谷正(1983), pp.475~485 ; 齋藤忠(1937), 「慶州所在の「立樹雙鳥文」彫石に就いて」, 『考古學雜誌』第27卷 第9號, pp.620~622

50) 이 문양의 기원에 관해서는 道明三保子(1987), 「ササンの連珠圓文錦の成立と意味」(深井晋司博士追悼 『シルクロード美術論集』, 吉川弘文館, pp.153~176)와 ジェイ・グラッグ, 「ササン王朝の運命と法隆寺「四天王文旗」」(『佛教藝術』36) 참조

51) 실제로 松本包夫는 그 外箱의 文句를 보았는지 보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幡을 初唐期の 中國製 舶載品으로 보고 있다. (松本包夫(1979), 『日本の染織』第1卷, 東京, 中央公論社, p.257)

52) 이와 관련하여 正倉院 遺物들의 많은 수가 韓國系 文物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金東旭(1988), 「正倉院 寶物の位相」, 『新羅文化財學術發表會論文集』第9集pp.99~100)

53) 지금의 고리수(chain stitch)와 같은 것으로 마치 고리모양으로 繡놓은 것을 말한다.

있다.⁵⁴⁾ 우리나라에서도 이 繡法은 적어도 삼국시대이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의 경우는 奈良時代に 들어서서야 분명히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幡은 고신라말에서 통일신라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鬼面瓦와 흡사한 主文樣과 중국 初唐期の 특징을 지닌 連珠文의 형태등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고신라말 혹은 통일신라 초기의 변이라 생각된다. 특히 7세기말 혹은 8세기초에 제작된 변을 소장하고 있는 법륜사에서 옮겨온 것이라 한 점이나, 7세기 중엽경의 사원으로 알려진 天恩寺址出土의 鬼面瓦와 흡사한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전해지는데 소요되는 기간 등으로 미루어 늦어도 7세기말경에 제작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대 염직품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幡은, 비록 잔결이지만 우리 염직사에 있어 가장 귀중한 예가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변에 鬼面을 표현한 것도 현재 남아있는 유품중 유일무이한 例로 세계 幡의 歷史上 주목되는 것이다.

현재 이 幡의 잔결은 위와같은 이유로 古新羅末 내지 統一新羅 初期의 것이라는 연대추정이 가능하나 실제로 어떤 형태의 변이었던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변이 江戸時代に 法隆寺로부터 叡福寺로 옮겨왔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唐幡의 형태가 아닌 隋代의 양식을 받아들인 법륜사의 변, 그 중에서도 蜀江錦幡(圖 21), 廣東幡(圖 22)과 그 형태가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主文樣으로 표현된 鬼面이라는 것이 옛부터 전승되어왔던 관습이기는 하지만 사악함을 막고자 하는 염원에서 만든 이른바 除惡의 상징이므로 불교사상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幡 또한 그와 같은 의도로 鬼面을 표현하였을 것이며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그 幡身에 해당할 것이다. 사실상 변이 발달했다는 중국에서조차 이와같은 鬼面幡의 유례가 전혀 없어 일반적인 추측이 이 변에 적용될지는 의문이나 아마도 鬼面의 幡身을 중심으로 隋代의 幡과 거의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즉 幡頭는 한장의 직물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두줄 혹은 세줄의 띠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변신의 가장자리에는 한겹 혹은 두겹의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수대변을 기본형으로 하였을 것이기는 하지만 수대변과 차이점이라면 幡身이 1枚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때문에 변신 각 단의 경계선 좌우의 가장자리에 박혀있는 원형의 금속장식은 없었을 것이며, 대신 幡手에는 법륜사 초기의 변과 같이 山形의 金銅透彫裝飾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금동투조장식은 앞서도 서술하였듯이 법륜사의 가장 이른시기의 변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현재 法隆寺 獻納寶物로 東京國立博物館에 몇점이 남아있다. 金銅板에 忍冬唐草를 투조하고 山形部分에 구멍을 뚫어 그곳에 매듭의 술과 같은 色絲를 끼우고 있다.(圖 24, 25) 이 투조장식의 경우 특히 그 투조문이 당초문의 선구적인 龍文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식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와같은 문양은 우리나라의 古墳出土 金屬品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금동투조장식이 일본 최고의 변인 법륜사변 중에서도 특히 이른시기의 변에 주로 나타난다는 점, 또한 법륜사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이 금동투조 장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분금속품 중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고식문양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금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것이거나 혹은 우리의 匠人이 일본에 건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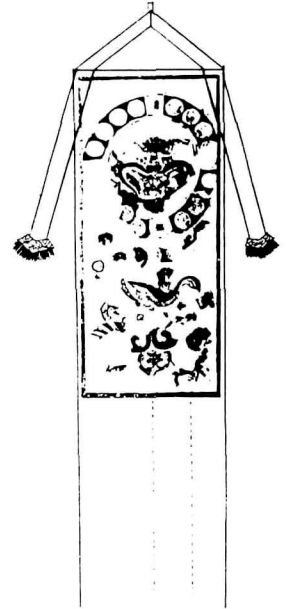
54) 拙稿(1990), 「실크로드의 染織」, 『中國大陸의 文化』 1, 東國大學校編, p.227 참조

제작한 것이리라 추정되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幡인 獅咬連珠圓文刺繡幡에도 이 금동투조금구가 장식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마도 범룡사의 번에 표현되어있는 것과 같은 幡舌은 표현되어 있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이같은 추정들을 종합하여 만들어본 獅咬連珠圓文刺繡幡의 推定復元圖는 다음과 같다.(插圖 2 참조)

위에 든 예는 唐幡이 이미 유입되고 隋代幡은 사저가는 시기인 古新羅末 내지 統一新羅 初期에 만들어진 과도기의 귀면번이라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다음으로는 통일신라 전반에 걸쳐 유행하였을 일반적인 번의 형태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고신라말에 이미 유입되었을 唐幡이 통일신라시대에는 어떠한 모양으로 변화하였을까? 우선 그 형태를 유추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고대문헌과 『高麗圖經』 등의 고려시대 이후 기록에 조차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시기에 해당하는 일본번의 여러 예를 통해서도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統一新羅時代에 해당하는 중국 唐代와 일본 天平時代의 正倉院幡을 비교하여 보면 그 기본형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唐幡의 경우는 그 실물유품에 있어서 五色幡에 비하여 佛像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日本의 幡은 이른시기의 것중에는 佛像幡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唐幡에는 幡舌이 없지만 정창원의 번은 隋代幡을 모방한 범룡사번의 전통을 이어받아 여전히 幡舌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唐幡들이 대체적으로 단순소박한데 반해 일본의 번들은 중국의 盛唐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이미 장식화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 일본의 번은 신라에 의해 唐幡이 전해진 이후 자체내 발전을 거듭하여 正倉院幡의 末期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插圖2) 觀福寺幡의 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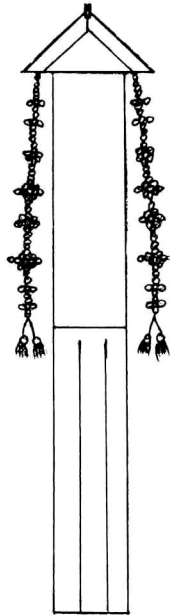
中國과 日本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 통일신라시대의 번은 어떠한 형태이었을까? 統一新羅와 唐의 교류는 그 사절의 왕래만을 보아도 眞平王 43年(621)부터 孝恭王 10年(907)까지의 약 300年 사이에 遣新羅使가 약120회, 唐使는 약210회의 왕래가 있어⁵⁵⁾ 新羅와 唐사이의 깊은 교류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신라의 幡은 唐幡을 기초로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그것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어떤 형태로 변화하였을까가 統一新羅幡을 고찰하는데 있어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三國遺事』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條에서는 ‘流蘇幡蓋’라고 하였고, 『佛國寺古今歷代記』에는 ‘부채꼴로 마름질한 나머지부분은 염색하고 꼬매이어서’라고 하고, 또한 『高麗圖經』 黃幡條

55) 西谷 正(1983), p.482

에는 '그 형상은 위를 뾰족하게 하였고 두 귀에서는 流蘇를 내렸는데 흔들면 소리가 난다'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삼각형의 幡頭를 지녔고 幡手 대신 流蘇를 매어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高麗圖經』이 1123년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통일신라시대 번의 형태를 추정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 唐幡의 형태가 唐 이후 宋代에 까지 그대로 이어져 나타나므로 최소한 고려시대까지는 통일신라 번의 형태가 계속되었으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流蘇가 유행되었다는 것은 慶州 南山의 佛像들에서도 증명되는데 葦長寺址의 三輪臺座佛像과 三陵谿石造如來坐像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三陵谿의 石造如來坐像(圖 38)의 왼쪽 어깨에서 무릎아래로 매듭지으며 길게 드리워진 가사끈은 매우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어 그 형태를 잘 살펴볼 수 있다.(圖 39) 이로 미루어서도 통일신라시대에는 매우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流蘇가 유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신라의 幡은 전형적인 唐幡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幡手를 流蘇로 대신하였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또한 '흔들면 소리가 난다'라고 한 점에서 流蘇에 방울을 달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통일신라시대의 번은 유소, 방울을 다는 등 전체적으로 화려하기는 하였을 것이나 日本幡과 같이 幡舌이 두드러진 다거나 혹은 幡足끝에 垂飾을 다는 등의 지나친 장식화로 치달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插圖 3 참조)



(插圖 3) 統一新羅幡의 추정도

우리나라에도 물론 불교유입이전의 幡은 존재하고 있었다. 즉 왕의 행렬에, 그리고 軍隊의 軍旗로서 사용되었던 幡은 여러 문헌사료를 통해서 뿐만아니라 高句麗와 古新羅의 벽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韓國 古代幡의 實物은 佛敎와 관계된 것이던 그렇지 않은 것이던 완결로 남아있는 것은 현재

한점도 없고 단지 日本 叡福寺에 단편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幢竿 및 幢竿支柱가 다른나라에 비하여 유난히 그 數가 많고, 또한 풍기출토의 금동용두 등을 통해서도 번이 상당히 발달 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韓國 古代 佛教幡의 형태를 유추해 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해주었다는 기록이 확실히 남아있는 日本의 가장 이른 시기의 幡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日本 叡福寺 獅咬連珠圓文刺繡幡의 잔결은 古新羅末 내지 統一新羅初期의 幡으로 그 형태는 隋代幡과 거의 유사하나 단지 幡手の 끝에 金銅透彫 裝飾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鬼面幡은 세계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유품중 희귀한 예에 속하는 것으로 世界 幡의 歷史上 주목되는 것이다. 위와같은 특이한 예를 제외한 統一新羅 全般에 걸쳐 유행되었던 幡의 형태는 전형적인 唐幡을 기본으로 하면서 幡手를 流蘇로 대신하였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佛教의 儀式行事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佛具중의 하나인 幡에 관하여 그 起源인 인도부터 시작하여 중앙아시아, 중국(이하 「古代 中國 佛教幡의 樣式變遷考」, 『美術史學研究』 189 참조) 그리고 韓國·日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번은 대체로 染織品이라는 材質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현재 남아있는 유품이 다른 미술품에 비하여 대단히 적고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잔결이 대부분이어서 그 체계적인 고찰이 어렵고 따라서 그 연구 또한 태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번에 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그 기원지인 인도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에 이르기까지의 양식적인 변천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도에서 기원한 번은 중앙아시아로 이르러 마치 제비꼬리를 닮은 '제비꼬리형번'이 형성되었고, 그 제비꼬리형번은 중국에 유입되어 唐代에 이르러면서 지금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번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번은 우리나라, 일본에 유입되어졌고, 그 과정에 있어서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그 기본형은 중국의 것을 따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연구에 있어 중국의 경우는 敦煌에서 출토된 상당량의 幡이 있고, 일본에도 法隆寺 혹은 正倉院에 있는 幡이 다수 있어 그 고찰이 용이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이전의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한점도 없기 때문에 고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일본 大阪의 叡福寺에 통일신라시대의 번으로 추정되는 번의 殘片이 남아있어 주목되었는데 이 번의 잔편은 유리사이에 끼워져 보관되어 있고 그 外箱에 '新羅國獻上之幡'이라는 墨書銘이 있다. 이 번의 連珠紋樣과 鬼面의 모습, 그리고 針法(鎖繡:지금의 Chain stitch)으로 미루어 통일신라초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번에 귀면을 표현한 예는 중국,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아주 귀중한 예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

졌다. 이처럼 다른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귀면번이 있다는 점에서 뿐만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幢竿, 幢竿支柱의 數나 織造 혹은 繡를 놓는 기술이 예로부터 발달했다는 점 그리고 여러 문헌기록 등으로 미루어 과거 우리나라에는 많은 수의 幡이 있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존에 가 없기 때문에 중국, 일본의 번과 비교 검토하여본 결과 統一新羅 全般에 걸쳐 유행되었을 幡의 형태는 전형적인 唐幡을 기본으로 하면서 幡手를 流蘇로 대신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와같은 번은 불교신도들이 가내에서도 그다지 많지 않은 천조각들을 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만들수 있었기 때문에 佛畫나 佛像에 비해 더욱 많이 제작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幡은 우리나라의 染織工藝史에서 뿐만아니라 佛教美術史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자료가 절대 부족한 현상황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많은 발굴을 통하여 그 실물이 출토되기를 막연히 기대하며 글을 맺으려 한다.

끝으로 이 글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本稿의 敘述上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을 筆者 나름대로 선택한 것이며, 또한 이 모든 자료들을 다 섭렵한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오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앞으로의 연구에 전초작업으로 삼고자 하며 그 과제로 각 지역번의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불어 기타 미비한 점은 앞으로의 연구과정에서 질정을 받아 수정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圖 1. 高句麗古墳壁畫, 安岳第3號墳, 行列圖, 4c中.



圖 2. 도 1의 세부.



圖 4. 藥水里壁畫古墳의 前室 東·西壁 上部의 行列圖.



圖 5. 德興里壁畫古墳 前室西側天井 玉女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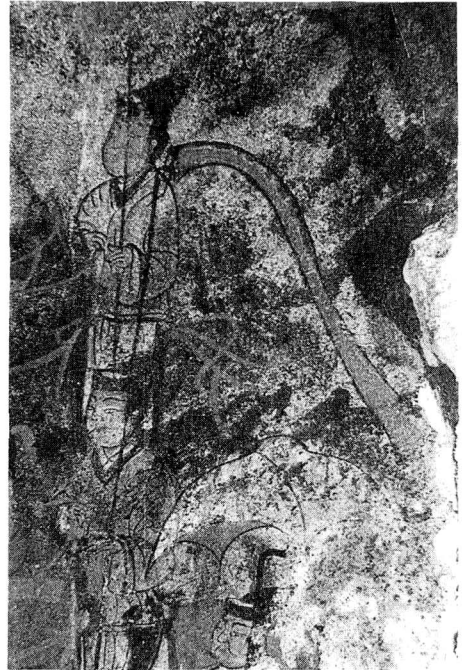


圖 3. 安岳第3號墳, 行列圖, 4c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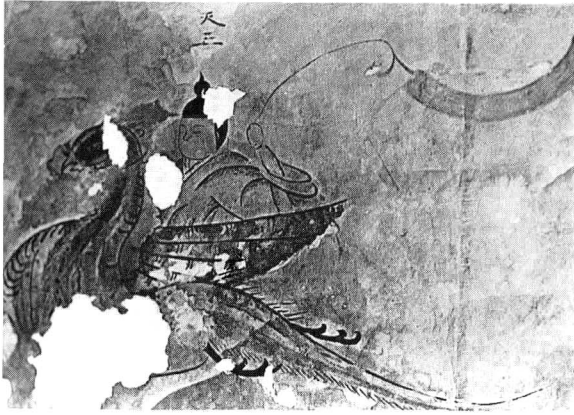


圖 6. 天王地神塚 主室天井의 天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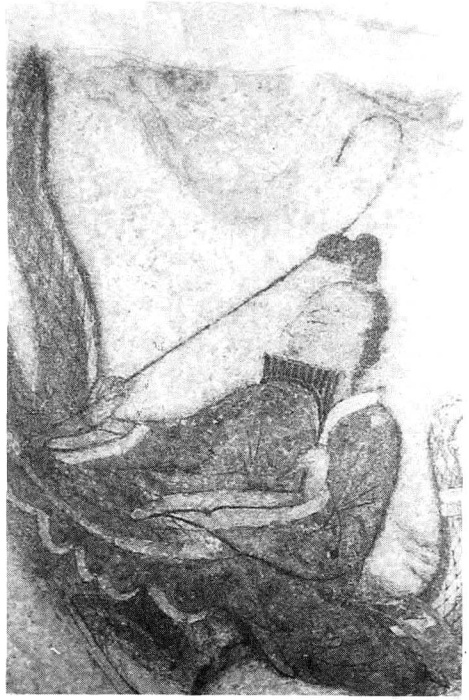


圖 8. 圖7의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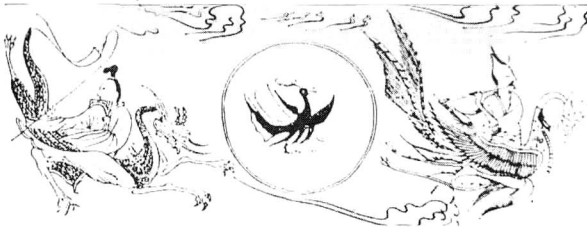


圖 7. 五盛墳四號墓, 左壁天井, 日神·乘鳳凰圖, 輯安, 6c.



圖 9. 安岳第3號墳, 行列圖, 4c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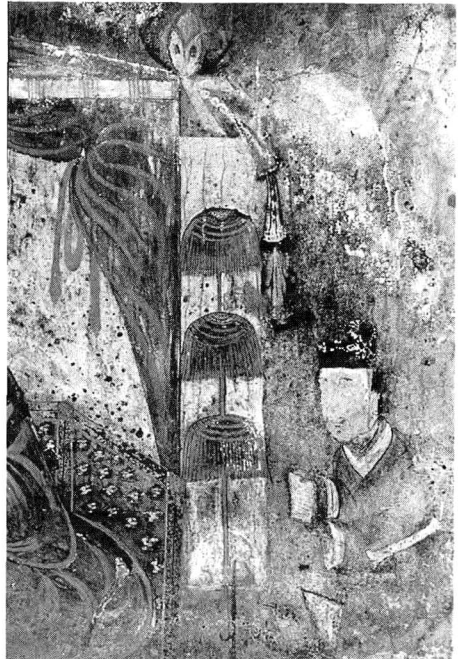


圖 10. 安岳第3號墳, 行列圖, 4c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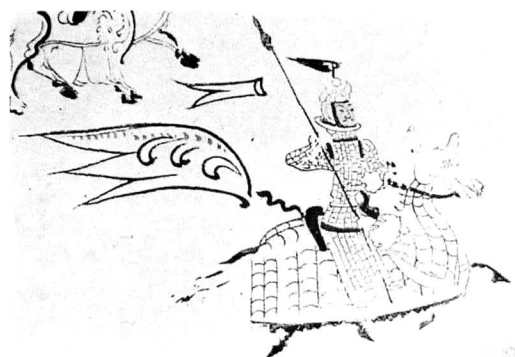


圖 11. 雙楹塚, 羨道東壁, 車馬人物圖, 5~6c.



圖 12. 順興邑內里壁畫古墳, 魚形旗, 羨道西壁, 古新羅(539年 추정).



圖 13.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높이 15m, 全北 南原郡 山內面, 統一新羅.



圖 14.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높이 15m, 全北 南原郡 山內面, 統一新羅.

圖 15~18은 林 巳奈夫編(1976), 『漢代の文物』(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에서 採錄.



圖 15. 山東省 武氏左石實出土 畫像石.



圖 16. 四川省 成道 揚子山出土 畫像磚.



圖 17. 四川省 成道 揚子山出土 畫像磚.



圖 18. 遼陽北園出土 墓室壁畫.



圖 19. 敦煌莫高窟 第97窟, 供養比丘圖,
西夏(982~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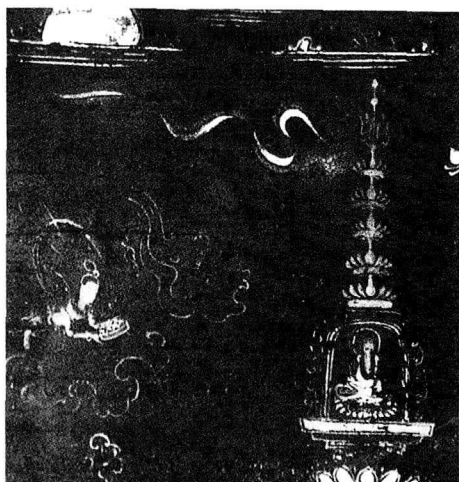


圖 20. 玉蟲廚子, 法隆寺, 飛鳥.



圖 21. 蜀江錦幡, 絹製, 길이 119.0cm, 幡身幅 14.0cm, 東京國立博物館 (法隆寺獻納寶物), 飛鳥時代(7c 후반).



圖 22. 廣東小幡, 길이 119.0cm, 幡身幅 14.0cm, 東京國立博物館(法隆寺獻納寶物), 飛鳥時代(7c初).



圖 23. 平絹幡, 絹製, 法隆寺, 飛鳥時代(8c初~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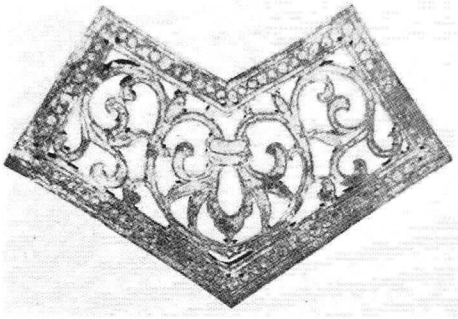


圖 24. 金銅透彫垂飾金具, 幅 6.8cm, 法隆寺, 飛鳥~白鳳時代(7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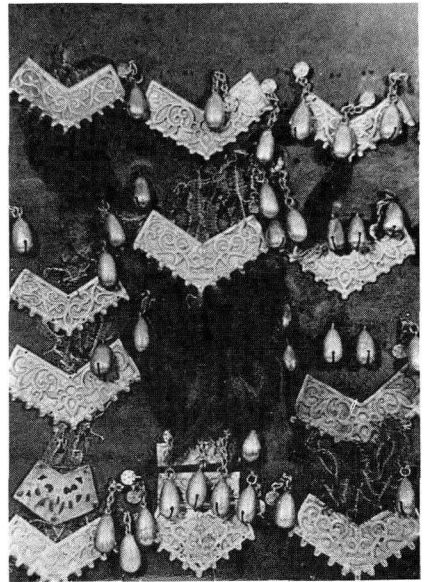


圖 25. 金銅透彫垂飾金具, 幅 6.8cm, 法隆寺, 飛鳥~白鳳時代(7c).



圖 26. 夾纈羅幡, 正倉院,
天平勝寶 4年(752).



圖 27. 錦幡, 길이 303.0cm,
正倉院, 天平勝寶 9年(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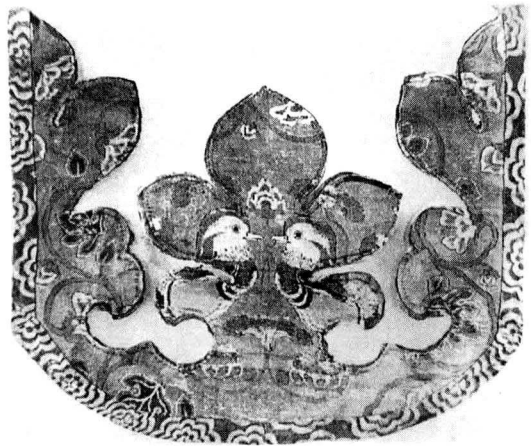


圖 28. 赤地鴛鴦唐草文錦, 길이 39.7cm, 正倉院,
南倉 8c中.



圖 29. 敦煌莫高窟 第257窟, 南壁中央,
佛三尊圖, 北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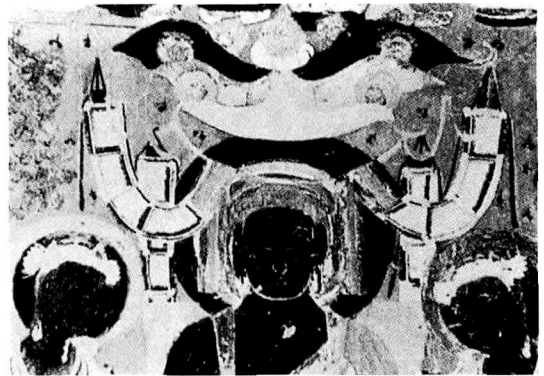


圖 30. 敦煌莫高窟 第305窟, 西壁北側, 傳說法圖, 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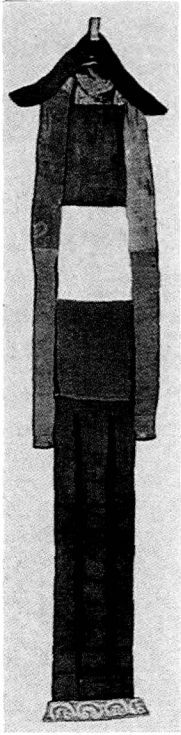


圖 31. 彩絹幡，敦煌出土，길이 131.1cm，大英博物館，唐(8~9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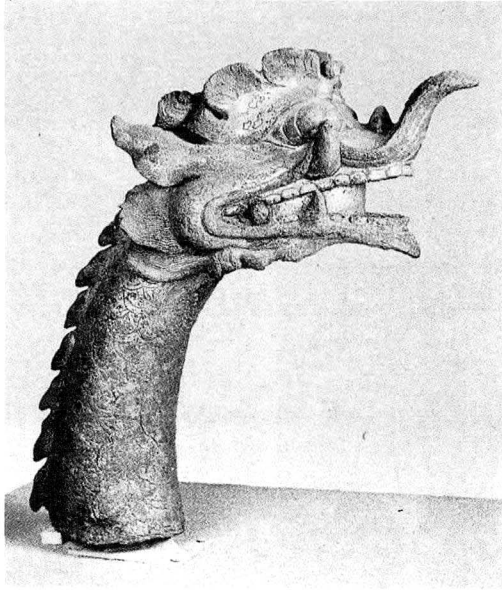


圖 32. 金銅龍頭，豐基出土，높이 65cm，國立中央博物館，9c.



圖 33. 金銅寶幢，높이 73.8cm，湖巖美術館，高麗時代.



圖 34. 獅交連珠圓文刺繡，文徑 22.0cm，叡福寺，7c.



圖 35. 鬼面瓦，天恩寺址出土，古新羅末(7c初~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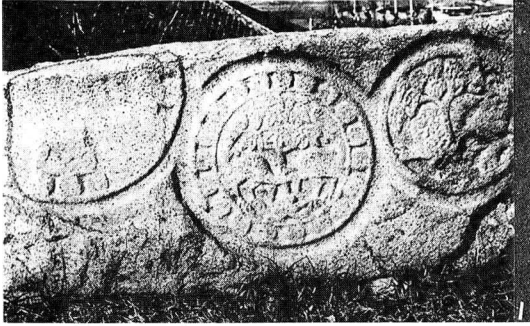


圖 36. 立樹禽獸文石材, 길이 약 3m, 幅 약 75cm, 文徑 50cm, 國立慶州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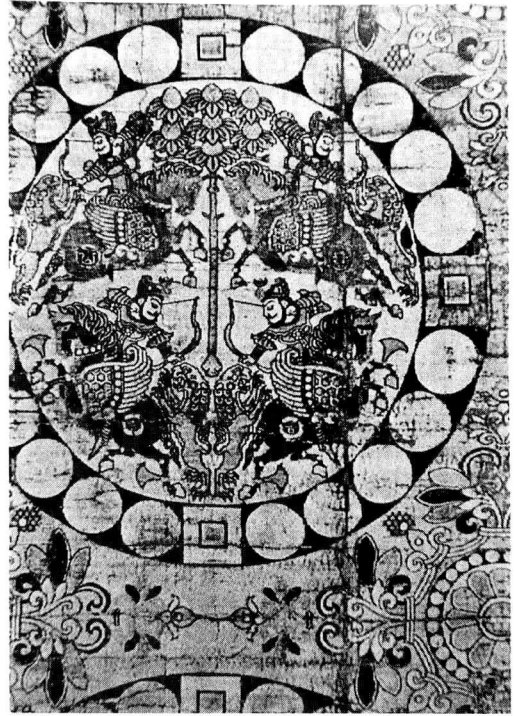


圖 37. 四騎獅子獸文錦, 길이 250.0cm, 法隆寺, 7c末.



圖 38. 三陵谿石造如來坐像, 높이 1.6m, 慶州南山, 통일신라.



圖 39. 圖38의 세부.

[ABSTRACT]

A Study on Korean and Japanese Buddhist Banners

Yim Yong-ae

This is the second part of a Two-Part study of the evolution of Buddhist banners in India, Central Asia, China, Korea and Japan. It covers Korea and Japan while Part I dealt with the definition and origin of the Buddhist banner as well as the stylistic change in Central Asia and Chinese Buddhist banners. Part I was published in No. 189 of the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Section I of this paper deals with ancient Korean banners depicted on wall paintings and on the main trunk of Buddhist stupas(塔身). It also examines briefly historical materials related to Buddhist banners.

Section II deals with the banner in pre-history Japan and also with the Buddhist banners preserved in the Shōsōin(正倉院) and in the Hōryūji Temple(法隆寺).

Section III attempts to reconstruct the history of the banner in the Unified Silla period based on the findings in section I and II.

In writing this paper, I have confronted many difficulties because while it was very easy to find Chinese banners at Dunhuang(敦煌) and the Japanese banners at the Shōsōin, and at the Hōryūji Temple, there are no intact Korean banners extant before the Chosŏn period. Fortunately, I was able to locate a fragmentary banner of the Unified Silla period at the Eifukuji Temple(叡福寺) in Ōsaka. On this fragment there is a seven-character inscription stating that the banner was presented [to Japan] by Silla(新羅國獻上之幡). This fragment appears to date to the early Unified Silla on the basis of its decoration as well as embroidery technique. It is decorated with pearl roundels(連珠文) and monster masks(鬼面) and embroidered in chain stitch(鎖繡). This fragment is of special value to the study of Korean banners because the monster mask is a motif not found in the banners of China and Japan. Furthermore, we can assume that many banners were produced in the Unified Silla period since the technical expertise to weave them existed and the poles(幢竿) and stone columns(幢竿支柱) from which they were flown are still extant. Finally, as a result of stylistic analysis of Chinese and Japanese banners, I have tentatively concluded that those of the Unified Silla differ in having a large knot(流蘇) on each side of the main part instead of the flange arms(幡手) found in the basic Tang banner.